

## 지오토(Giotto)의 회화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감상문 쓰기.

지오토의 회화에 대한 감상을 정리하기 전에, '지오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려고 한다. 나는 먼저 묻고 싶다. 지오토는 왜 '예수'와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그렸을까. '예수와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나는 '예수와 프란치스코'의 생애가 가지는 공통점, 그리고 지오토의 달라진 회화화법에 그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예수와 프란치스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당대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갔다'는 점이다. 나는 생각해본다. '사랑보다 교리, 사랑보다 권위'가 자리하던 중세시대에, 지오토는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를 예수와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통해서 그려내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지오토는 중세 시대에 만연했던 '추상적인 신'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섬기는 것보다도, 예수와 프란치스코처럼 현세의 삶 속에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돕고 사랑을 나누던 구체적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믿지 않았을까. 단순한 '신과 내세를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난 신의 구체적 사랑의 행위와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지 않았을까.

나는 그랬기에, 지오토가 '그 당대의 주류 회화양식이자 스승이 구사했던 '중세의 로마네스크적'인 특징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을 표현하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신은 내세보다도, 현세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구체적 행위'에 그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랬기에 <예수와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그려내며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구체성을 획득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 덕분에, 나는 그가 그 당대의 미술가들이 고수했던 '회화'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현실감 있는 자연주의적(구체적) 회화를 표현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관점아래, 지오토가 그려낸 '예수와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접근하여, 회화를 해석하여 보고자 한다. 예수와 프란치스코가 걸어갔던 '구체적 사랑의 행위'를 중심으로 말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지오토의 그림을 한 점 한 점 깊이 해석하는 것보다, 그가 회화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를 읽어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오토가 시도했던 새로운 회화적 묘사는 모두 지오토가 작품 속에 담아내려고 했던 '의도(현세 속 구체적 사랑의 행위를 잘 드러내기 위한)'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기 때문이다.

먼저 지오토가 그린 <예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예수는 '로마네스크적으로 추상적인 신'을 단독적으로 찬미하는 느낌이 아니다. 예수의 구체적인 행위가 묘사되어 있고, 그림은 내세적이기보다는 현세 속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무엇보다도 지오토가 그려낸 <예수의 일생> 그 모든 작품에서 예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가 직접 '사람들과 만나'는 그 구체적 행위를 중심에 두고, 작품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단순히 추상적인 신을 찬미하고 흠송하는 그림보다도, '예수의 삶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 행위'가 더 귀한 것임을 지오토는 회화 속에 담아내고 싶지 않았을까.

'Massacre of the Innocents', 'Expulsion of the Money-Changers from the Temple'의 회화를 통해, 예수가 그 당대의 존재하던 '그릇되고도 억압된 질서'에 저항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고, 'Marriage at Cana, Christ among the Doctors, Raising of Lazarus'의 회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 당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Washing of Feet, Road to Calvary, The Arrest of Christ (The Kiss of Judas)'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보여준 구체적 사랑의 행위를 떠올릴 수 있고, 'Entry into Jerusalem, lamentation'을 통해서, 예수를 환대하고 깊이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삶의 크기를 가늠하게 한다.

나는 <예수의 일생>에서 지오토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예수의 생애에 담긴 이야기요,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일깨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오토는 <예수의 일생>을 통해, 앞으로 기독교가 진정 지향하고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Massacre of the Innocents>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에서는 예수가 없다. 예수의 생애를 그려내면서, 예수가 없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가톨릭 성인들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이 <예수의 생애>를 설명하기 위해 그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묘사를 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나는 지오토가 이 회화를 통해 '예수'보다도, '예수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왕의 뜻이라면 무고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일 수 있었던 풍경들을 그려내며 당대를 비판함과 동시에, 그러한 사회 속에서 약자와 함께하고자 했던 예수의 현세적 사랑의 행위가 대비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개별 작품이 독립적으로 가치는 가치보다도, 전체 흐름 속에 그가 담아내려고 했던 의도가 때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왼쪽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당대에 특정 사람들을 군림 하던 자가 돋보인다. 더불어 그가 응시하고 있는 시선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차갑고도 매서운 분노에 찬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다. 그 속의 한 여인은 자신의 아이가 관리들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고, 아이를 찌르려는 관리 밑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참으로 처참하고 공포스러운 장면이고, 그 당대에 무고하게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던 시대 풍경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듯한 장면이다. 왼쪽에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이지는 못하고 이를 쳐다만 보고 있는 그 당대의 고위직 관리들과 방관하는 자들의 얼굴도 함께 그려내고 있다. 더불어 직접 아이를 처단하는 자들 중에 가장 선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물'은 흑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그림은 그 당대에 벌어졌던 '학살 풍경'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옷은 '부분적으로 푸르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하늘의 색과 같다. 만약 하늘의 색이 하느님으로 상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가톨릭 성인도 아닌 어느 지상의 한 어머니의 옷은 왜 특별히 부분 부분 푸르게 묘사되어 있을까. 나는 지오토가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사랑', 그 구체적 행위의 아름다움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게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곧 하느님의 사랑이요, 이를 통해 '그 구체적 행위'를 극적으

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지오토가 그려낸 <프란치스코의 생애>에도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구체적 사랑의 행위'의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그가 구체적 사랑의 행위를 하기 위해 선택했던 '청빈'의 삶도 잘 드러나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Saint Francis Giving his Mantel to a Poor Man"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작품을 처음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드는 느낌은 '프란치스코'가 작품의 중심에 위치하여 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동시에 그가 가난한 이를 만나, 자신이 입던 옷을 전해주는 그 행위 자체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에 못지않게 옆의 '말' 또한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여 묘사된 이유를 쉽게 헤아릴 수는 없었다. 다만 현실 속에서 구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 혹은 인간에 의해 제 3자 취급을 받지만 말 역시도, 인간처럼 동등하게 이 세상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지오토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말이 작게 표현될 수 있었음에도 말은 그림 속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오토의 작품을 개인적인 주관으로 멋대로 생각해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오토의 작품을 천천히 살펴보며 느낀 점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의 사랑'에서 벗어나, '예수와 프란치스코로 대표되는 현세 속 인간의 구체적 사랑의 행위'를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지오토가 '예수와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현세 속 인간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깊이 포착한 후에, 이를 그려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회화에서 '구체성과 자연주의적 특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덕분에 현세적 구체성과는 동떨어진 당대의 '추상적인 로마네스크적 회화기법'을 의심할 수 있었고, 현실감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기법을 묘사하기 시작했으리라고 생각한다.